

송치형, 네이버 최대주주 되나… ‘지분 스왑’ 시나리오 촉각

〈두나무 회장〉

네이버-두나무 ‘주식교환’
송치형 회장, 지분 19% 확보
네이버 최대주주 등극 가능성
두나무 주주 동의가 핵심 변수
네이버 지분 희석, 2대 주주로

네이버와 두나무의 초대형 주식 교환 거래가 IT·금융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의 시선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네이버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이르면 연내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의 핵심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 차이다. 시장에서는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약 14조원, 네

이버파이낸셜은 약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두나무 주식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이 발생한 신주 3주로 교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 비율대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면, 현재 두나무 지분 약 25.5%를 보유한 송회장은 단숨에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19%를 확보하며 합병 법인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75%(전환 우선주 포함) 가량을 가진 네이버의 지분율은 19%로 희석돼 2대 주주로 내려앉는다. 형식은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은 두나무 주주들에게 넘어가는 ‘역인수’ 형태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송 회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장기적으로 네이버 본사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추가 합병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지만, 증권가에서는 추후 송

회장과 네이버 측의 ‘지분 스왑’을 통해 지배구조 확립이 마무리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네이버의 지분구조를 보면 글로벌자산운용사 블랙록 6.1%, 국민연금공단 9.3% 등이 주요주주로 지목된다. 창업자인 이혜진 의장의 지분율은 3.5%에 그치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구조다.

송 회장이 합병 법인에서 갖게 될 19% 지분을 네이버 지분과 스왑할 경우 단일기준으로는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역시 합병법인의 지분에 근거해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분 스왑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네이버 시가총액을 40조원(9월26일 기준)으로 가정하면 네이버 지분 10% 가치는 4조원 가량이다. 이를 합병법인 지분 20%로 산정하면 마찬가지로 4조원(20조원의 20%) 규모로 합리적인 교환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합병에서 두나무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연 1조라는 확실한 실적을 보유한 두나무가 네이버에 흡수되는 그림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적 주식 교환은 두나무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두나무의 경우 창업자의 지분율이 높은 구조지만 김 부회장의 지분(13.1%)을 더해도 38.6% 그친다. 주요주주로 거론되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10.6%), 우리기술투자(7.2%), 한화투자증권(5.9%) 등의 동의 없이는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편입 소식이 전해진 지난 25일 네이버 주가는 급등한 반면 두나무 주가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서 11.4% 급락한 25만4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다만 자회사 편입 후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점쳐지며 두나무 주가는 전날 40만5000원까지 치솟아 3년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비범한 프로젝트’ 1기 최종 선정자인 이윤희(34) 씨가 서울 중구 신당동 ‘코시아 커피’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NHN

NHN KCP

비범한프로젝트 1기 성료 코시아 커피 창업자 선정

NHN KCP는 30일 통합 창업 지원 서비스 ‘비벳’을 통해 진행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비범한 프로젝트’ 1기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자금, 운영, 홍보를 직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창업 지원금, KCP POS+ 포스기와 영수증, 매장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창업 준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 패키지를 제공했다.

프로젝트는 지난 7월 말부터 약 2주간 비벳 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비전과 사업 가능성, 경영 의지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자를 확정했다. 1기 선정자는 카페 ‘코시아 커피’ 창업자 이윤희 씨로, 신당동 매장을 오픈하며 인테리어·청소 등 비벳 제휴 서비스 지원을 적극 활용했다. 비벳은 이 과정을 담은 콘텐츠를 앱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추후 브랜딩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창업 스토리를 전할 계획이다.

NHN KCP는 올해 하반기 ‘비범한 프로젝트’ 2기를 진행해 더 많은 예비 창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NC, 고객 상담챗봇에 세이프가드 적용

NCER에 자체 AI 안전성 기술 도입
레드·블루·퍼플 삼중 보안체계 기반

엔씨소프트가 국내 최초로 자체 AI 안전성 기술 ‘세이프가드’를 고객 상담 챗봇 ‘NCER’에 적용했다.

NC AI는 30일 엔씨소프트 고객 상담 챗봇 서비스 ‘NCER’에 자체 개발한 AI 안전성 기술 ‘세이프가드’를 정식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내 AI 기업이 종합적인 AI 세이프티 시스템을 상용 서비스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이프가드는 레드팀, 블루팀, 퍼플팀으로 구성된 삼중보안 체계에 기반한

다. 레드팀은 악성 공격 패턴을 연구하고 블루팀은 방어 기술을 개발하며, 퍼플팀은 두 결과를 종합해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다. NC AI는 엔씨소프트와 협업해 게임 업계 특성을 반영한 챗봇 네거티브 규제 정책도 마련했다.

NCER는 2024년 도입된 서비스로, AI 기술과 게임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문의 대응과 버그 제보, 건의사항 접수 처리해 CS 효율화와 만족도 향상을 이끌고 있다. NC AI는 텍스트 중심의 안전성 기술을 향후 비전·랭귀지 모델 기반 멀티모달 콘텐츠 탐지로 확장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넥슨-네이버, 콘텐츠-플랫폼 결합 추진

전략적 업무협약… 시너지 극대화
일상-게임 유기적 연결 경험 제공

넥슨과 네이버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플랫폼 결합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넥슨과 네이버는 30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콘텐츠와 플랫폼 경쟁력을 결합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플랫폼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넥슨과 네이버는 방대한 유저 데이터를 활용해 일상과 게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1단계로 유저 계정과 결제 데이터를 통합해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후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개인화된 게임 콘텐츠 노출, 네이버 게임 관련 콘텐츠와 넥슨 게임 연계, 네이버 플랫폼 내 게임 플레이 및 결제 기능 도입



30일 넥스코리아 강대현(오른쪽) 대표와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넥슨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과 연계한 지식재산권 협업과 공동 콘텐츠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넥슨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협업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내 게임 및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야구 국대 경기 디지털 독점 중계

KBO와 국대평가전 파트너 협약
네이버 스포츠·치지직서 생중계

네이버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손잡고 국가대표 야구 경기 생중계와 티켓·굿즈 판매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야구 축제를 연다.

네이버와 KBO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회관에서 국가대표팀 평가전 ‘2025 네이버 K-베이스볼 시리즈’ 프레젠테이션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는 오는 11월 8~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 한국-체코전, 11월 15~16일 일본 도쿄돔 한국-일본전 등 총 4경기의 디지털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네이버 스포츠와 ‘치지직’을 통해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으며, 경기 데이터·하이라이트·스트리머 해설·실시간 채팅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제공한다.

네이버는 경기 티켓과 굿즈 유통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허구연 KBO 총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네이버

도 나선다. 고척스카이돔 한국-체코전 티켓은 내달 30일부터 네이버에서 단독 판매되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는 선예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식 유니폼·모자 등 대표팀 굿즈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판매된다.

이외에도 대표팀 훈련 공개 행사 오픈 프랙티스, 팬 참여형 직관챗링지 영상 캠페인 등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11월 통합 컨퍼런스 ‘단25’ 개최

네이버는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AI 도구를 비롯한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탐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25’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단24’에서 선보인 온서비스 AI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킨 자리로, 개발자와 창작자, 광고주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소통이 마련된다.

최수연 대표는 오프닝 키노트에서 기술, 크리에이티브,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유기적으로 융합한 새로운 AI 전략을 소개하고, 네이버가 그려갈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

이다. 검색·광고·콘텐츠 부문장들도 연사로 나서 사용자 일상의 변화와 글로벌 확장 전략을 공유한다.

양일간 기술·경험&크리에이티브 세션, 답다이브 세션, 서비스&비즈니스 세션이 진행되며, 네이버 AI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경험이 공개된다.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비즈니스와 콘텐츠, 오프라인 경험이 결합된 ‘그라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키노트 세션은 행사 당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생중계 알림 신청은 9월 30일부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

‘AI 페스타 2025’ 참가 모든 나를 위한 AI 공개

카카오는 AI 워크 대표 행사인 ‘AI 페스타 2025’에 참여해 일상형·플랫폼형 AI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는 30일 국내 최대 규모 인공지능 축제 ‘AI 페스타 2025’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 공식 전략 주간 ‘AI 워크’ 대표 행사다.

카카오는 ‘모든 나를 위한 카카오 AI’를 주제로 다양한 AI 서비스와 기술을 전시·시연한다. 이번 전시 부스는 ‘카카오 AI 스테이션’을 메인 테마로, 일상과 가능성 두 공간으로 구성됐다.

일상 공간에서는 카나나 요약하기, 카나나 인 카카오톡, 카카오톡에 적용된 챗GP T 기능을 선보인다. 가능성 공간에서는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과 멀티모달 언어모델, AI 에이전트 생태계 플랫폼인 플레이MC P, AI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세이프가드를 전시한다. /최빛나 기자